

# “150만 시민 성원 보답” “전남 체육인 명예 회복”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광주·전남 총감독 출사표

오순근 “향상된 경기력으로 한단계 도약”  
정건배 “한 치의 후회 없는 경기력 발휘”

축구 광주 금호고 전남 광양제철고 8강  
광주 13위 전남 10위 향해 본격 레이스

‘뭉쳐라 서울에서, 뻗어라 대한민국’이라는 구호 아래 제100회 전국체육대회가 4일부터 7일간 잠실종합운동장 등 서울특별시 일원 72개 경기장에서 개최된다.

광주와 전남 선수단은 종목·팀별로 경기가 진행되는 서울로 이동했으며 시도체육회 본부도 3일 당도에 올랐다. 광주는 득점 2만8,922점을 기록해 종합순위 13위를, 전남은 3만3,455점으로 2년 연속 10위 달성을 목표로 나섰다.

광주시선수단 총감독을 맡은 오순근 광주시체육회 사무처장은 “미래 100년 대계를 이어갈 이번 전국체육대회에서 150만 광주시민의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46개 종목에 1,214명이 출전하는 광주 선수단은 지난 여름 하계강화훈련을 통해 상위 입장을 노리며 경기력 향상에 매진했다. 무더위 속에서도 특히 2019나폴라하계U대회에 출전했던 광주 소속 국가대표 선수들이 값진 메달을 획득하고 돌아왔고 이번에는 고장의 명예를 위해 전국체전 광주 대표로 나선다.



오순근 총감독  
광주시선수단



정건배 총감독  
전남도선수단

오 총감독은 “우리 선수단은 보다 향상된 경기력으로 한 단계 도약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육상 간판이자 광주의 자랑스러운 아들딸인 김국영, 김덕현, 정해민, 배찬미와 육상 기대주 모일환, 여자수영 국가대표 백수연, 효지종목 여자유도 김성연, 근대5종 전용태, 펜싱 강영미 등이 출전해 국가대표다운 기량을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시는 안정된 경기력으로 4년 연속 2만8,000점대의 득점을 기록했다. 신기록 수립과 다관왕, 연배 선수들이 대거 배출돼 스포츠도시로서의 명예를 드높였던 만큼 이 기세를 몰아 이번 대



지난 2일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전국체전 모의개막식이 열렸다.

/연합뉴스

회에서도 그 동안 갖고 묶은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해 지난해보다 한 단계 성장한 결과를 거두겠다는 각오다.

오 총감독은 “우리 선수단은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그동안 체육인들의 업적이 깃든 이번 대회에 개인, 고향, 시민들의 영광과 명예를 위해 감동을 선사할 것”이라며 “1년 결실을 맺는 대회인 만큼 그 동안 흘린 땀이 헛되지 않도록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해 빛을 광주의 자존심을 걸고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선수단 총감독을 맡은 정건배 전남도체육회 사무처장은 “100회 대회에서 종합 10위 달성에 대한 욕망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전남선수단은 47개 종목에 1,630명이 출전한다.

정건배 총감독은 “우리 선수단은 그

동안 열악한 여건에서도 강인한 정신력을 바탕으로 강도높은 훈련을 통해 경기력 향상에 매진해 왔다”며 “그동안 정성스레 쏟아부었던 열정만큼 한 치의 후회 없는 경기력 발휘를 통한 우수 성적을 거양해 침체된 전남체육의 재도약 발판을 마련함과 동시에 200만 도민의 여망과 성원에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비장한 출사표를 던졌다.

전남선수단은 체육회를 중심으로 그동안 강화훈련 및 단계별 경기력 향상을 추진, 전남 대표 선수들의 전력을 극대화하는데 주력해왔다. 또 우수선수 전략적 육성과 함께 불참 종별 해소, 전략종목 확대 운영 등 다양한 방안으로 대회를 준비했다.

또 체육관계자회의, 회원종목단체회장 간담회, 대운전력 업무협의회 개최 등 기존 틀에서 벗어나 다채롭고 새로운

방안으로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참가를 내실있게 추진해왔다.

한편, 3일 시작된 축구 고등부에서 광주 금호고와 전남 광양제철고가 첫승을 거두고 8강에 진출했다.

금호고는 강원 강릉제일고와 3-3으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으나 승부차기에서 5-3으로 승리했다. 광양제철고는 충북 충주상고에 4-0 완승을 거두고 8강에 올랐다.

제100회 전국체전 개최식은 ‘몸의 신화, 백년의 탄생’이라는 주제로 4일 오후 6시 30분부터 잠실종합운동장 올림픽주경기장에서 진행된다. 제100회를 기념하는 카운트다운과 체육인(심권호, 여흥철, 임오경 등)으로 이뤄진 대한민국 스포츠합창단이 부르는 애국가 제창, K-POP 축하공연 등을 통해 대회의 시작을 성대하게 알린다. /최진화 기자



**14 전남매일**  
2019년 10월 4일 금요일

## KIA 양현중·문경찬 테크마크 WBCS 프리미어12 대표 발탁

2020년 도쿄올림픽 출전권 획득과 프리미어12 대회 2연패에 도전하는 한국 야구대표팀 최종 엔트리가 공개됐다.

김경문 야구대표팀 전임 감독은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1월 제2회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프리미어12에 출전하는 대표 선수 28명을 발표했다.

KBO리그 투타 간판선수들이 모두 테크마크를 단 가운데 KIA에서는 양현중과 문경찬이 명단에 포함됐다.

대표팀은 투수 13명, 포수 2명, 내야수 7명, 외야수 6명으로 구성됐다.

구단별로는 정규리그 1위 두산 소속 선수가 6명으로 가장 많고 키움(5명), SK·NC(4명)가 뒤를 이었다.

김경문 감독은 “최종 엔트리를 확정하기 전까진 머리가 아팠는데 이제 선수들을 믿고 한 달 남은 기간 준비를 잘해 홈에서 열리는 대회에서 좋은 결과로 팬에게 보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출사표를 올렸다. 이어 “도쿄올림픽 본선은 아직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11월 6~8일 서울에서 열리는 프리미어12 예선 라운드만 생각하고 첫 경기가 중요한 만큼 11월 6일(호주) 경기에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프리미어12는 11월 2일 개막한다. /연합뉴스

## 골프치고 관광하고

강진 다산배아채골프앤리조트  
27홀 골프장에 53개 객실 오픈

강진 다산배아채컨트리클럽이 지난 1일 다산배아채골프앤리조트 개장식을 갖고 체류형 관광지 및 골프장으로서 본격 영업을 시작했다.

총 52개의 객실을 보유한 리조트는 전 객실에서 바다와 산의 풍광을 조망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5층에 위치한 스위트 룸에서는 가우도와 바다를 내려다보며 즐길 수 있는 육조와 테라스가 준비되어 있다. 이국적인 야외수영장과 어린이퍼팅장 등 부대시설을 갖췄으며 리조트 인근의 다산초당, 백련사, 영랑생가, 가우도 등 여러 관광지와 함께 쉬어갈 수 있는 힐링 여행의 길이 열렸다.

지난해부터 영업을 시작한 다산배아채 CC는 27홀 규모의 대중제 골프장으로 씨사이드가 14홀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 장보고코스 6번홀(파3)은 대형 호수 가운데 그린의 자리한 아일랜드 홀인데다 그린 너머로 대한민국에서 가고 싶은 섬 1위 가우도가 눈앞에 보인다. 다산코스 7, 8번홀은 일명 쌍둥이홀로 조선500년의 역사와 함께한 후박나무가 있다. 한 폭의 수묵화를 바라보는 듯한 절경의 코스는 흠을 이동할 때마다 감탄을 자아낸다.

/최진화 기자



## 내가 바로 가을사나이

3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와일드카드 결정전 1차전 LG 트윈스와 NC 다이노스의 경기. 4회말 1사 2루에서 LG 이형종이 1타점 적시타를 치고 환호하고 있다. 3-1로 승리한 LG는 6일부터 키움과 준플레이오프를 치른다. /연합뉴스

## 광주FC 3승 더하면 우승

2위 부산과 승점 7점차...6일 아산 원정

하나원큐 K리그2 2019가 5경기만을 남겨 놓은 가운데 광주FC가 앞으로 3승만 더하면 대망의 K리그2 우승을 차지, 승격전쟁에 마침표를 찍는다.

31라운드까지 광주는 승점 64점(18승10무3패)으로 1위를 달리고 있다. 2위 부산은 승점 57점(15승12무4패)으로 양팀간 승점차는 7이다.

잔여 5경기에서 부산이 전승을 할 경우 승점 72점이 되며 이때 광주는 5경기에서 승점 9점을 보태면 73점이 되면서 자력 우승을 하게 된다. 부산(62득점)이 광주(49득점)보다 득점이 많아 승점이 같으면 광주가 뒤진다. 반드시 승점이 더 많아야 하고, 승점 9점을 위해서는 3승이 필요하다.

대신, 부산이 패하면 그만큼 광주의 부담은 줄어들게 된다.

지난 29라운드에서 광주가 부산에 패해 승점차가 '5'로 좁혀졌지만 이후 광주는 2연승을, 반면 부산은 1승1무를 하면서 승점차는 '7'로 벌어졌다.

단, 광주는 승강플레이오프 진출 싸움을 벌이고 있는 중위권팀들을 상대해야 하는 일정이 기다리고 있다.

당장 6일 오후 5시 상대하는 아산 31라운드까지 광주는 승점 64점(18승10무3패)으로 1위를 달리고 있다. 2위 부산은 승점 57점(15승12무4패)으로 양팀간 승점차는 7이다.

잔여 5경기에서 부산이 전승을 할 경우 승점 72점이 되며 이때 광주는 5경기에서 승점 9점을 보태면 73점이 되면서 자력 우승을 하게 된다. 부산(62득점)이 광주(49득점)보다 득점이 많아 승점이 같으면 광주가 뒤진다. 반드시 승점이 더 많아야 하고, 승점 9점을 위해서는 3승이 필요하다.

대신, 부산이 패하면 그만큼 광주의 부담은 줄어들게 된다.

지난 29라운드에서 광주가 부산에 패해 승점차가 '5'로 좁혀졌지만 이후 광주는 2연승을, 반면 부산은 1승1무를 하면서 승점차는 '7'로 벌어졌다.

## 황희찬 1골 1도움 UCL 2경기 연속골

‘황소’ 황희찬(잘츠부르크)이 ‘디펜딩 챔피언’ 리버풀(잉글랜드)을 상대로 1골 1도움의 맹활약을 펼치면서 2019-2020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2경기 연속골을 폭발했다.

황희찬은 3일(한국시간) 영국 리버풀의 안필드에서 펼쳐진 리버풀과 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E조 1차전에서 0-3으로 끌려가던 전반 39분 만회골을 터트렸다.

황희찬은 후반 11분에도 왼쪽 측면에서 날카로운 왼발 크로스로 미나미노 다쿠미의 2-3 추격골에 도움을 주면서 멀티 공격포인트를 완성했다.

이로써 황희찬은 지난달 18일 헝크(벨기에)와 E조 1차전에서 1골 2도움의 맹활약을 펼친 이후 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2경기 연속 득점과 멀티 공격포인트(1골 1도움)의 기쁨을 맛

봤다.

잘츠부르크는 교체로 투입된 엘링 홀란드가 후반 15분 동점골을 터트리며 따라붙었지만 후반 24분 리버풀의 무함마드 살라흐에게 빼 아픈 역전골을 내주고 3-4로 석패했다.

같은 조의 나폴리(이탈리아·승점 4)가 헝크(1무 1패·승점 1)가 0-0으로 비기면서 선두로 나선 가운데 잘츠부르크(승점 3·골득실+3)는 리버풀(승점 3·골득실-1)과 승점이 같았지만 골득실에서 앞서 E조 2위에 랭크됐다.

황희찬의 매서운 발발 감각이 제대로 드러난 경기였다.

팻스다카와 함께 최전방 투톱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한 황희찬은 최근 훈련 도중 다친 눈을 보호하려고 고글을 착용하고 경기에 나섰다. /연합뉴스